

# 광주·대구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첫 발 댔다

이용섭·권영진 시장 국회서 유치 선언  
국제 스포츠 행사 경험·경기장 활용  
저비용·고효율 탄소중립 대회 개최  
공동유치위원회 구성 본격 유치 활동

원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공동유치 선언문을 통해 “양 도시의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중립 실현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회 공동유치를 계기로 영호남 동서화합을 이뤄내고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관광 및 경제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는 바로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와 대구는 지난 2002년 월드컵대회를 개최한 도시로, 2003년에는 대구에서, 2015년에는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했다. 또 2011년에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2019년에는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양 지역 모두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한 주요 일정은 ▲아시안 게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방의회 동의 ▲대한체육회 유치신청 및 국내 후보도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 및 심의 ▲OCA 유치신청 및 개최도시 결정 등으로 진행된다.

영호남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작업이 26일 첫발을 댔다. 세계수영대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대구) 등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른 양 시도의 경험과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저예산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대구를 오가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면 영호남 상생에도 큰 도움을 주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건설에도 한 걸음 다갈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양 지역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로, OCA 회원 45개국, 1만여 명이 40여개 종목에 참가하는 세계 메가 스포츠 대회이다.

이날 공동유치 발표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윤영덕·이병훈·양항자·이형석·민형배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김승수·강대식·홍석준·김용환·한무경·서정숙 등 대구지역 국회의

원인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공동유치 선언문을 통해 “양 도시의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중립 실현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회 공동유치를 계기로 영호남 동서화합을 이뤄내고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관광 및 경제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는 바로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와 대구는 지난 2002년 월드컵대회를 개최한 도시로, 2003년에는 대구에서, 2015년에는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했다. 또 2011년에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2019년에는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양 지역 모두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한 주요 일정은 ▲아시안 게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방의회 동의 ▲대한체육회 유치신청 및 국내 후보도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 및 심의 ▲OCA 유치신청 및 개최도시 결정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통상 대회 10~14년 전에 개최도시를 결정하고 있어 2038년 대회는 2024년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대구가 개최도시로 최종 결정되면,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열리게 되며, 공동 개최는 국내 최초 사례가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6명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 의견서 제출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 등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대응으로, 통상 개별 기

관별로 의견을 제출해 온 관례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이 시장과 권 시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달빛내륙철도는 대통령 대표 공약이자, 동서화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영호남 내륙은 연결 철도망이 전무한 유일 초광역권이며, 대구-광주는 특광역시 중 연결 철도노선이 없는 유일한 대도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이 노선과 연결되는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등 국가 주요 철도망 전체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광주·대구시장은 “영호남 6개 시·도가 긴밀히 연대·협력해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연립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선언 2021. 5. 26.(수)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계획을 발표한 뒤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대구시장, 국토부장관에 달빛내륙철도 '공동 의견서' 제출...“국가철도망계획 반영돼야”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6명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 의견서 제출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 등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대응으로, 통상 개별 기

관별로 의견을 제출해 온 관례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이 시장과 권 시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달빛내륙철도는 대통령 대표 공약이자, 동서화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영호남 내륙은 연결 철도망이 전무한 유일 초광역권이며, 대구-광주는 특광역시 중 연결 철도노선이 없는 유일한 대도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이 노선과 연결되는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등 국가 주요 철도망 전체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광주·대구시장은 “영호남 6개 시·도가 긴밀히 연대·협력해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연립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연립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연립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안보·경제·백신 성과...국회 초당적 협력 기대”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김기현 “충분한 백신 확보 안돼 유감”  
최강욱 “전작전권 문제 생략 아쉬워”

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미 간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맺은 것과 관련, “너무 자랑스럽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백신 문제에 있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여야 대표들부터 ‘노쇼 백신’을 먼저 맞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취소 혹은 연기 의지를 실어 북한에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안,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5당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지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미 성과와 관련, “안보·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미사일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미사일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미사일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미사일지침 종료는 방위비 협정 타결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장으로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